

[종합·해설]

■이효선 광명시장 '전라도 X' 발언 파문

# 한나라 호남구에 '헛말'이었나

### 선거후 야당 자만심·도덕적 해이 드러나 "당차원 강력징계 조치해야" 여론 높아



이효선 광명시장

한나라당 소속 이효선 광명시장의 호남 비하 발언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며 "당 윤리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강제집행 대 표 등 당 지도부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효선 시장이 개인 사과 성명을 내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이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위 한나라당의 서진정책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서진정책을 펴며 호남에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지도부 구성이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효선 시장의 발언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호남에서의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해 현장서 삽질하는 고건

23일 한나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효선 광명시장의 '호남 비하 발언' 문제와 고위 당직자들의 '수해 골프', 단양군수의 '음주가무' 사건 등 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호남 출신인 한나라당 한영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비상최고위원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호남 출신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한

## 정가풍 향계

### 주류·비주류 갈등 여진 계속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벌어졌던 주류와 비주류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의장 선거 파문 이후 의정활동을 보이콧했던 비주류 의원들이 지난 21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 상임위 재배정 및 예정 위 구성, 간사 선임 등은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처리 예정된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보류·계류했다. 이날 계류 및 보류된 조례안은 광주시 제정등 명 수수료 징수 일 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급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광주시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광주시 하남 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조례안 보류 사유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를 들어 자신들의 의정활동 부진을 스스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임시회가 25일 끝날 예정이어서 24일 제심의키로 한 시금고 지정 조례안 등을 제외하자 상당수 조례안은 8월 임시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비주류 측이 광주시법에 제출한 의장단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단 선출 원인무효 소송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 북구 복지정책 점검 나서

○열린우리당 김태홍(광주 북구) 의원은 24일 광주를 방문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광주시 북구지역의 주민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등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북구정 현장간담회에서 주민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실시 중인 시군구·읍면동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기 정착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결식아동에 도시락 전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2일 봉사단체인 '좋은 사람들' 회원

과 함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시영, 주공아파트와 주택단지 등을 방문,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에게 200여개의 도시락을 전달했다. 원 의원은 매일 넷째 주 토요일 '좋은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서울·대전·광주지역에 회비를 걷어 손수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등 지역복지정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 광주 남구의회 임시회

○광주시 남구의회는 24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청취, 예결위 위원 구성,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정일, 네 번째 부인 맞아

### 비서출신 김옥씨와 동거...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 자녀 확인 안돼...후계구도 주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4년 부인 고영희씨가 사망한 이후 비서출신인 김옥(42)씨를 새 부인으로 맞아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수의 식물은 23일 "김정일 위원장은 2년 전 고영희씨가 사망하자 비서출신인 김옥씨를 맞아 김옥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전했다. 김 옥씨와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의 등장이 향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옥씨는 1964년생으로 평양음악 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1980년대 초부터 고영희씨가 사망할 때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기술서기로 활동했다. 기술서기 중 김 위원장의 신임이 가장 두터웠던 김 옥씨는 김 위원장의 군부대 및 산업시설 시찰 등 국내 현지지도 수행은 물론 이번 결혼에도 참석했으며 2000년 10월 조영복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



김옥씨에게는 내게 1만5천달러를 내 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한화갑 민주당 대표 정계개편 3원칙 제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3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논의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7·26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성북을 조순형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열린우리당이 깨져서 오면 받아주겠다 ▲필요하면 민주당도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다 ▲분당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는 손잡지 않겠다는 등 기존 입장을 정리한 3대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당대당 통합론을 의식한 듯 "우리당과 통합은 해가 서쪽에서 떠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 안하든 우리당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北 6자회담 참여땀 대표 만날 용의"

#### 라이스 美 국무장관

오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한, 미, 중, 일 등 관련국들간 '5자회담'과 '6자회담'을 놓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시 수석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은 22일 라이스 장관이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5개 언론사와 가진 공동 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라이스 장관이 회견 중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권"으로 강력히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문제를 미·북간 이슈로 만들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

북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미국외에 국제사회도 상대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제, "우리는 이 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계속 간주할 필요가 있겠지만 6자회담이 열린다면 꼭 참가해 북한 대표와도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을 중재해 온 중국에 대해서도 "국력과 영향력이 신장되고 있는 나라"로써 향후 강력한 역할을 해주는 한편 (역내) "안보상황 개선 및 변역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자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23일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권"으로 강력히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문제를 미·북간 이슈로 만들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

Naeyoung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eatures: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수강문의: 062-529-0090".

Kim Jae-gyu Police Academy advertisement. Features: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Mudeung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eatures: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8월 1일", "무등고시학원", "222-4560".

Gwangju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eatures: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8월 1일", "광주고시학원", "227-8003".

Kim Jae-gyu Police Academy advertisement. Features: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062)236-3112".

Kim Myeong-daek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eatures: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김영", "8월 1일", "227-8088".